21세기에 산다

# 꿈같은 하이테크 레저

**새로운 21세기에는 위락산업이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한여름에도 활강을 즐길 수 있는 실내스키돔이 세워지고 원통모양의 '플라이어웨이 돔'에서 우주 비행복으로 갈아입은 뒤 200km의 돌풍을 타고 우주인처럼 유영을 즐길 수도 있게 된다. 2020년경에는 우주호텔이 등장하고 해저캠프촌도 건설된다. 또 아마존강에서 환경친화형 여행도 즐기고 에베레스트 등반 희망자도 줄을 잇게 된다. <편집자>**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큰 가치를 두는 새로운 세기에는 위락(엔터테인먼트)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개인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주간 근로시간이 평균 35시간으로 줄어드는 반면 연간 휴가일수가 10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위락에 대한 개념은 크게 바뀌기 시작한다. 일을 위해 위락을 취한다는 종래의 개념에서 위락을 통해 삶을 즐기기 위해 일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번져 나간다. 한편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2010년 : 76.1세)도 크게 늘어나는 반면 은퇴연령이 앞당겨지면서 일을 그만둔 뒤에도 평균 20여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한다. 21세기의 신세대들도 사회·재정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 밖에서 위락을 찾는다. 그래서 위락산업은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21세기 초에는 줄잡아 60여개의 테마파크와 레포츠센터가 전국 곳곳에 자리하면서 새로운 레저문화시대의 막이 오르게 된다. 21세기에는 어떤 위락시설이 우리를 맞게 될까?

## 2005년엔 실내스키돔

21세기 초에는 우리나라에도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예컨대 인천 송도매립지에 2005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진 실내스키돔은 한여름에도 길이 5백20m의 슬로프를 활강하며 즐길 수 있다. 실내스키돔에는 사시사철 인공으로 만든 눈으로 덮인다. 활강장 천장에 수백개의 눈만들기 노즐을 배치하고 고르고 미세한 안개모양의 물방울을 압축공기(5기압)와 함께 활강장으로 뿜어 낸다. 기압이 별안간 떨어지면서 섭씨 영하 5도의 공기속을 약 30m 날아간 뒤 땅에 떨어질 때는 눈모양이 되어 버린다. 21세기의 실내스키돔에서는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미생물이 눈과 얼음을 만드는데 한몫 거든다. 물이 어는 것은 0도라고 하지만 순수한 물은 영하 40도가 되어도 6각형의 얼음결정만 생길 뿐 뭉쳐서 얼음덩어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찻잎이나 상추 표면에 사는 '수도모나스 시링게'라는 미생물을 물과 섞으면 결빙을 부추기는 특수한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런 '얼음의 씨앗'을 제설기에 섞어 뿌려 주면 얼음이 어는 온도를 영하 2도까지 끌어 올릴 수 있고 눈의 질도 뛰어나다.

21세기 위락단지의 특징의 하나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크고 멋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먼저 레저타운에는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이런 유원지에서는 야생동물이나 동화 또는 인류의 문명 등 특정한 테마에 어울리게 조경이나 건물이 통일된다. 테마파크는 영화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컴퓨터그래픽, 기계공학, 컴퓨터게임 등 첨단과학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걸작이다. 짜릿한 자극없는 생활은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틈만 나면 집을 떠나 롤러코스터(무개열차를 연결하여 고가의 급커브로 된 레일위를 타성에 의해 달리게 하는 장치. 일명 청룡열차) 등의 위락시설을 갖춘 유원지를 찾는다. 그런데 롤러코스터에도 새로운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종래의 롤러코스터는 체인이나 케이블에 끌려 첫번째 언덕 정상까지 올라간 뒤 중력으로 차를 가속하게 되지만 리니어유도기(LIM)라는 신기술을 도입한 21세기형 롤러코스트는 승객을 태운 뒤 불과 4초 내에 시속 1백13km로 가속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차마다 사용되는 약 2백개의 하이테크 모터에 있다. 이 모터에 교류전류를 공급하면 전자력(電磁力)을 만들어 코스터를 가속한다. 또 중년층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테마파크가 등장한다. 예컨대 '코스모시티'라는 이름의 테마파크에서는 아득한 옛날 고도의 과학문명을

가진 인류 이전의 지능인이 있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도시를 재현한다. 레저타운에는 박물관이 들어서서 교육과 위락이라는 두가지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21세기의 위락시설에는 온갖 첨단기술이 동원된다. 예컨대 체감(體感)게임시스템에서는 가상현실시스템을 통해 전투기를 타고 공중전을 할 때의 넘치는 드릴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원통모양의 '플라이어웨이 돔'에서는 우주비행복으로 갈아 입고 돔 속으로 들어 가서 돔바닥에서 나오는 최대 풍속 200km의 돌풍을 타고 공중으로 두둥실 떠 오르면서 우주인 처럼 유영(游泳)을 즐길 수 있다.

## 우주호텔·해저캠프 등장

2020년경에는 지상 4백50km의 낮은 궤도에 거대한 수차를 모로 누인 꼴을 한 최초의 우주호텔이 건설되어 마침내 우주위락시대의 막이 오른다. 모두 64개의 객실을 갖춘 이 우주호텔은 샤워룸을 비롯하여 액정TV와 소파, 베드 등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다. 이곳을 찾는 고객들은 남태평양 우주기지에서 우주선을 타고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객실은 매분 3회씩 회전하여 만든 인공중력이 걸려 있어 관광객들이 세수하거나 샤워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무중력상태에서 우주생활을 맛볼 수 있는 시설도 특별히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무중력상태에서 스포츠도 하고 식사도 한다. 예컨대 이곳 농구코트에서는 키작은 사람이 가볍게 점프해도 10여m 높이에 걸려 있는 바스켓 속으로 공을 쉽게 꽂아 넣을 수 있다. 또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주 보행과 달 주변을 도는 관광코스도 제공한다. 2박3일의 우주호텔 체재비는 한사람당 약 10만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우주공간에 떠 있는 파란 지구를 내려다 볼 때의 '엄숙한 감동'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젊은이들은 해저캠프촌을 즐겨 찾는다. 바다 밑 이곳 저곳에 설치된 강화플라스틱제의 동그란 공모양을 한 해저캠프는 널찍한 창문이 여러 곳에 붙어 있어 실내에서 바다 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또 어떤 캠프에는 창 밖의 물고기와 함께 바다 밑을 산책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젊은이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도 하이테크 레저시설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환태평양의 생태계를 지구규모로 재현한 머린월드관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5천4백톤의 해수를 담은 깊이 9m의 대수조 속에서 온갖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 21세기에는 그 옛날 실크로드의 쉼터였던 중앙아시아 사막의 오아시스 카스가얼(喀什噶爾 : 중국 서쪽끝인 신장 웨이우얼자치구 서부의 도시)이 다시 세계의 십자로로 등장할지 모른다. 21세기의 젊은 배낭족들은 1990년대초 프라하로 떼지어 모여들었듯이 이 중세도시를 메울 것 같다. 이들이 엄마에게 보내는 전자우편은 아름다움과 흥분과 고독으로 찬 서사시로 메워진다. 21세기에는 사람이 들끓지 않거나 이색적인 여행의 종착지를 찾기 어렵게 된다. 마지막 미개척지역은 사라지고 미지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공료가 떨어지고 도로가 확장되고 각국이 개방정책을 펴는 한편 세계의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여행은 가장 빠른 성장산업의 하나가 된다. 기업가들은 스키와 인도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인 일본의 피닉스 시가이아와 같은 곳을 더 많이 건설한다. 아무리 뛰어난 '가상의 현실'도 해수욕복을 입고 모래밭을 밟는 기분과는 바꿀 수 없다.

## 아마존 환경친화 여행도

21세기의 중년층 사이에서는 극단적이거나 모험적인 휴가가 유행하여 단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찾는다. 편안히 지내면서 햇볕에 살갗을 태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문화를 탐구하고 체중을 줄이며 인간관계를 되찾는 일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한다. 은퇴한 고고학박사들의 안내를 받아 예컨대 아마존강의 지류를 일주일간 두루 돌아다니는 환경친화형 여행도 유행할 것이다. 미국 사교계 명사들 가운데는 1986년 당시 50대의 디즈니영화사장 프랭크 웰스와 석유업계의 거물인 딕 베이스가 세계 7대 봉우리를 정복한 것을 계기로 뜨거워지기 시작한 에베레스트 등정 열풍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그래서 3명의 노련한 전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최고봉을 등반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런 레저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첨단장비(5만달러)와 등반비를 합치면 13만달러가 필요하다. 한편 영국은 2000년을 기념하여 이른바 '밀레니엄 휠'이라는 거대한 페리스 관람차(쇠기둥에 수직으로 묶은 큰 바퀴 가장자리에 가마모양의 좌석을 매달아 회전시키는 것. 발명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 관람차를 타고 25분간 공중을 여행하면 런던과 그 주변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ST

〈春堂人〉